



드론

전남의 미래전략산업인 '드론'과 관련된 사업을 타 시·도가 잇따라 추진하면서 자칫 전남도가 초기 선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이미 정부부처, 연구기관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 '2016 드론쇼 코리아' 개최, 관련 업체와 협약 체결 등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전남도가 정부부처,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이 타 시·도가 이미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전남의 미래 전략산업 타 시·도에 뺏길 우려

고흥군 고소리에 시범사업 준비...부산·강원은 이미 가시적 성과

전남도는 28일 "지난해 12월 14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드론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뒤 추진가능한 사업과 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을 계속해왔으며, 오는 3월께 최종 계획이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자 자문, 중앙부처와 조율, 관련 기관과 협의 등을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부산은 28일부터 30일까지 백스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22개 부스, 100여 종의 최신 드론이 전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 '2016 드론쇼 코리아'를 개최했으며, 대구는 지난 26일 한화테크윈(주)과 대구시청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스마트(지능형) 로봇 육성 협약을 체결했다. 또 강원도 영월군은 지난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시범사업자(15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타 시·도가 한 발 앞서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자체는 고흥군 고소리와 함께 지난해 10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4개월 여만에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범정부부처의 사업인 만큼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5~7개의 개별사업을 통해 드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한화테크윈, GS, KT, 한국전력, 유콘, 엔텔스 등 관련 업체와 연구기관과 접촉을 통해 42개의 사업을 골라내고 이 가운데 5~7개 사업으로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다. 이들 사업은 성능시험·평가, 인증기관 구축, 교육(인력양성), R&D, 경연대회, 산단 조성 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업 내용이 타 시·도에 중첩되고 있어 정부부처가 전남도의 선점을 인정할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전남도는 일단 지난 22일 지역·중앙 TF팀 전체회의에 이어 28일 산업별 중앙부처 1차 컨설팅, 이후 전남도·중앙 TF팀 합동 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드론에 관심을 갖는 지역들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을 이미 전남도가 시행하기로 한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 드론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정치권 이합집산의 민낯 ▶3면



新 팔도유람
충남 서천으로 떠나는
이른 봄마중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신안군의 파격 '인사 실험'

고길호 신안군수가 올해부터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정기 인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 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힘이자 권한인 '인사권'을 직원들과 공유하겠다는 것으로, 인사잡음 등 각종 인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신안군의 설명이다.

다만 노조의 과도한 인사개입과 발탁인사배제, 근무평정 중심의 인사에 따른 실·국장 등 간부에게 출세는 행태 등 또 다른 폐해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단체협약을 통해 신안군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정기인사 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로 예정된 올 상반기 인사부터 노조와 인사안을 공유하게 된다. 노조는 현재 본청과 읍·면사무소를 돌며 직원들의 인사 의견 등을 청취·취합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직렬별 순환인사와 근무평정 등에 대해 700여 공무원 의견을 취합하고 인사에 대비한 평가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신안군은 14개 읍·면 중 압해읍과 지도읍, 임자면, 증도면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역의 근무처가 섬인 탓에 상당수 직

원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등 각종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안군 공무원들 사이에선 인사철이면 '승진인사보다 전보인사가 더 우선'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정도라는 게 신안군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최대한 공정한 인사를 한다고 해도 인사 이후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이 적지 않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올 인사부터 노조를 직접 참여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도 이번 인사가 첫 시도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인사기준을 정하는 등 공정

고길호 군수 "인사권 노조와 공유"
노조, 700여명 근무평정·분석 나서
발탁인사 차단 등 부작용 우려도

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혁 노조위원장인 제시한 인사기준안은 ▲직렬별 순환근무제도를 기준으로 만들고, 직렬이 원하는 순환근무제 개선을 ▲전보인사 기준을 세워 원칙에 따라 직원 가정사를 배려한 발령 ▲읍·면별 행정수요에 맞는 업무분장 등이다.

이와 관련해 고길호 신안군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조서 제안하는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추가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직원 모두가 이해하는 원만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성진기자 silee@kwangju.co.kr



다가오는 설 '택배전쟁' 설 연휴를 9일 앞둔 28일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광주우편집국에서 직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를 분류하고 있다. 이번 설 택배물량은 9만 8000개로 전년 대비 13.2% 늘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더민주 김종인 지도부 광주서 첫발 민심잡기

주말·휴일 연석회의 개최

국민의당은 창당준비 '올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뀐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주말과 휴일인 30일과 31일 1박2일 일정으로,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방문해 첫발 민심잡기에 나선다.
더민주 새 지도부가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를 찾는 것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돌아선 호남 민심을 회복시키기 위한 판단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두환 군사정권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전력에 대해 광주 시민에 뒤늦게 사과한 김종인 위원장은 30일 광주방문 첫 일정으로, 5월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사과와 함께 본인의 공식 입장 등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 지역 언론사 사장

단, 기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어 광주 시장에서 비대위 및 선대위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민심을 달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 등 비대위원들은 광주 일정을 끝낸 뒤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로 이동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귀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천정배·박주선 의원 등 호

남 신당 세력을 흡수하면서 세 확산에 나선다는 등 내달 2일 중앙당 창당을 앞두고 원내교섭단체 구성 등에 '올인'하고 있다.

또한, 전남 출신인 이진태 변호사(영암), 정재홍 회계사(함평)와 유철중 크라우드연구소 대표 등 3명의 외부인사를 28일 영입하는 등 인재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정하성 고려대 교수와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공공경영연구원장이 안 의원 측 국민의당에 외곽지원 그룹으로 합류했다고 국민의당은 밝혔다.
/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깊이 있게 스며들어 찬란한 빛이 되다

헤라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세요
헤라만의 셀-바이오 모이스트™ 기술이 만들어 낸
출출한 미세오일입자가 걸퍼부는 신통하게, 속퍼부는 촉촉하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궁극의 보습을 선사합니다
느껴보세요, 오일과 세럼의 마법 같은 만남

HERA

● 유명명화점이나 아이오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www.hera.co.kr